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2월 9일(금)
(음력 12월 24일)
Пятница
9 февраля 2018г.
№ 5(11677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이번 주말에 사할린에서 러시아 동계스포츠의 날을 기념할 것이다. <고르늬 워스두흐>스키장에서.
(이예식기자 촬영)

러시아 농업부 장관, 사할린주 농업개발 긍정적 평가

사할린 주지사 올레그 코제먀코는 러시아 농업부 알렉산드르 트카쵸브 장관과 2017년 사할린주 결산 문제를 논의했다.

사할린주 정부는 러시아 여러 지역과 외국으로부터 사할린에 식료품 수입에서 벗어나 섬지역 내의 식량 확보 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사할린주에 농산물 생산의 증가세는 극동지역에서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에 주내에서는 육류와 가금류 생산량이 1/3이나 증가되었고 현재 사할린주 내 농장에서 재배한 감자와 채소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또한 온실 공사로 온실 야채 생산도119%로 증가세를 보였고 축산업체들의 활성화로 우유 공급도 5%나 증가했다.

사할린주개발공사의 지원으로 대규모 투자기획들이 실시되는 가운데 주내 농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타라나이 양돈장, 트로이츠코에 낙농장, 라즈돌녜에 농장, <오스트로브나야>양계장 등 각 마릿수가 증가하고 축산업에 인재 영입 작업도 진행되는 가운데 장려하는 점에서 젊은 전문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검토했다.

새로운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축산농장에 보급할 사료용 작물도 8000헥타르를 심어놓았다. 최근 2년간 주내 농산업체들은 농기계 450대를 보급받았다.

올레그 코제먀코 주지사에 따르면 2020년쯤에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100% 현지 생산으로 고품질의 신선한 온실 채소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우유를 공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트카쵸브 장관은 농업 생산량의 증가와 발전에 따른 사할린주 정부의 정책을 치하했다.

사할린의 종합농축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정부 홍보실은 전했다.

(주정부 자료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미리 보는 평창 개회식

2018 평창올림픽의 시작과 끝을 알릴 개·폐회식의 핵심은 평화와 미래다.

9일 열릴 개회식의 주제는 '피스 인 모션'(Peace in Motion)이다. 한국인이 보여준 연결과 소통의 힘을 통해 세계인과 함께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개회식 연출을 맡은 양정웅 연출가는 "어렵고 추상적이기보다는 모두가 공감하는 평화의 이야기를 개막식에 담으려고 했다"라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동하는 평화'를 그려냈다"고 소개했다.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행사 전용 시설에서 열린다.

개·폐회식 무대가 될 '평창의 심장' 올림픽플라자는 하늘에서 바라보면 오각형 모양을 띤다. 이는 평창올림픽 5대 목표인 문화·환경·평화·경제·ICT 올림픽의 실현을 상징한다.

보통 올림픽 개·폐회식은 개최국의 문화 역량을 과시하는 대규모 집체극 형태를 띤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은 섬세하고 촘촘한 한편의 공연으로 만들려 했다.

특히 행사 전용 시설이라 객석과 무대가 가까운 만큼 공연자와 관객이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한국인의 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것이 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상이다.

개·폐회식 기획·연출을 맡은 송승환 총감독은 "한국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K팝, 미디어아트, 현대무용, 마임, 디지털 퍼포먼스 등 현대적인 문화 자산을 동원해 세계인이 공감할 세련되고 글로벌한 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개회식 공식 행사는 9일 오후 8시 온 세계인을 맞이하는 한국의 종소리가 세상을 하얀 얼음으로 만들면서 시작한다.

개회식 공연은 강원도에 사는 다섯 아이가 한국의 고대 신화에서 출발해 과거와 미래를 탐험하며 평화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동화 같은 판타지로 펼쳐낸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굴렁쇠 소년이 나타난 것과 비슷하게 30년 만에 다시 안방에서 치르는 올림픽의 개회식에도 아이들이 등장한다.

송승환 총감독은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속 여행을 통해 모두가 함께 연결과 소통의 힘으로 만들어갈 평화로운 세계를 그린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올림픽 개회식에서는 남북한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며 다시 한 번 주목받을 전망이다. 92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남북한은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게양된 뒤 선수단이 입장할 때 맨 마지막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개회식장으로 들어선다. **(3면에 계속)**

단신

사할린에서 동계스포츠날을 기념

2월 10일-11일, 이틀간 사할린에서 동계스포츠의 날을 기념한다. 이를 위해 <고르늬 워스두흐>스키장에서 여러 행사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스노우보드와 알파인스키 무료교실이 열릴 예정이다 겨울 등산도 가능하고 프로그램에는 플레시몹, 한 세르게이의 공연, 프리스타일 선수들의 행사, 하키 경기 등이 진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018년 지도자〉 콩쿠르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청년들 가운데 <2018년 올해의 지도자> 콩쿠르의 막이 올랐다. 콩쿠르에는 17세부터 35세까지 젊은이 200여 명이 참가를 지원했다. 그중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여러 분야의 청년 전문가들이다.

콩쿠르 프로그램에는 교육 및 실습 부문이 있고 참가자들은 지역수준의 전문 지도자들에게서 강의를 듣고 사회적 활동의 발전과 안정된 도시환경의 향상에 따른 자신의 기획들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에 따르면 콩쿠르 결과에 따라 우승자들은 지방자치체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양 세르게이 작가와의 만남에 초대

오는 16일(금) 17시 30분 <사할린 섬> 박물관에서 양 세르게이(한국명 양수복) 작가와 만남이 이뤄진다. 소설가이자 시인이며 러시아작가동맹 회원, <소드루제스트워>사회단체 회장, 사할린주지사상 수상자인 양 세르게이는 <아버지의 환상 나라>여행기, <꽃들의 그림자> 시집, <고독한 구름의 꿈>소설, <비의 노래를 감상하며>책 등을 출간했다.

그의 문학창작의 주요 요소들은 기쁨과 슬픔이 뒤엉키는 서정적 발견,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운명에 대한 사색에 있다. 이번 애독자와의 만남 프로그램에는 사할린 작가들의 발표, 소감 나눔, 주제 전시회 <일곱 바람>관람.

싱가포르 사업체들 사할린 투자에 관심

2월 8일(목) 싱가포르 대표단이 사할린주를 방문해 투자문제를 파악했다.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Audentia Alliance Group의 파트너인 장 인제 사장을 대표단 단장으로 하여 사할린주개발부 알렉세이 우스펜스키 장관 대행과 만남을 갖고 투자 문제를 논의했다. 싱가포르 대표단 일정에는 <고르늬 워스두흐>스포츠단지, <쩨플리츠늬>솝호즈, 프리고로드노예 천연액화가스공장 등 방문, 주내 사업가들과의 만남이 있다.

2018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어릴 적 교육의 어려움 극복, 33세 나이에 대기업 대표 지부장까지 성장

사할린주 한인회 청년부 담당 박현성 씨

1월 초에 있은 주한인회 결산 회의에서 드디어 청년부를 맡게 된 33세의 박현성(러시아 명 박 알렉산드르) 씨가 소개되었다.

필자는 박 알렉산드르를 오래 전부터 알고 왔지만, 독자들에게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자 하는 젊은이를 소개하기 위해 박현성씨와 이야기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알렉산드르는 한국 선교사 가족 출신이다. 9살 때 부모를 따라 사할린 코르사코브시로 이민했다.

"제가 사할린에 처음 올 때가 1993년 6월이었어요. 러시아 학교 진학 준비를 하기 위해 여름방학 내내 공부만 했어요."라고 박현성 씨는 자신의 소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러시아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3학반에 공부할 나이였지만 러시아말도 잘 모르고 러시아 일반학교 진학해야 하니 한국 소년은 1학년을 또다시 해야만 했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그는 항상 극복해야 할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방학이 거의 없었다. 동갑내기 아이들의 학습을 쫓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어와 문학은 그에게는 항상 어려웠다고 한다. 이를 악물고 2학년을 마치고 모든 학과목 시험 통과 후 바로 5학년으로, 6학년에서 8학년으로 뛰어 넘었다. 그리고 11학년 졸업은 같은 나이 또래 학생들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코르사코브에서 3-4년을 살다가 박용석(현성씨 부친) 선교사 가족은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하게된다.

박현성 씨의 가족은 1990년대 초기에 사할린으로 파송되어 왔다. 그 당시 러시아의 경제는 바닥까지 무너진 상태였다. 열악

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편이 아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현성 씨처럼 두 언어에 능통한 재외국민들은 한국 명문대 입학 특혜로 시험 없이 면접을 통해 입학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비가 큰 부담이어서 가정 형편에 따라 현지 사할린국립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사실 현성씨는 언어, 문학보다 수학, 물리학을 훨씬 더 잘 했다고 한다. 그가 그런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언어가 미래에 유용하지 않을까란 생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공부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타고난 언어실력이 아니었고 그가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친구와 지켜보는 사람 대부분이 전공을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겨냈다.

어렸을 때 체질이 약해서 아이들이랑 싸울 때 자주 얻어맞았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고 위기들을 극복해나가면서 어떤 위기에서라도 맞닥뜨린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2학년부터 알렉산드르는 우리말방송국에서 한국드라마 러시아어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대학에서는 진짜 친한 친구들도 생겼고 여기에서 자신의 운명적인 사랑도 만났다고 한다.

그의 배우자 크세니아는 사할린 동포 3세다. 올해 이들은 결혼 10주년을 맞이한다. 이들 가정에 가장 소중한 자녀가 태어났다. 8살의 아들과 4살의 딸이다.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에 현성 씨는 사할린국립대 졸업 후 일하면서 유즈노사할린스크 경제법률정보대학(현 사할린인문기술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국제재무보고기준과정을 수료한 후 작년에는 대통령 프로그램 경영교육과정을 마쳤다. 그외 여러 수료증들이 있다고 한다. 정말 교육에 대한 의욕이 대단한 청년이다.

현성 씨는 그동안 한국과 관련한 여러 회사들에 근무했다. 결혼하고 나서 한 2-3년은 모스크바, 페테르부르그에서 일도 해보았고 모스크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에서 일하다가 그는 상트페테르부르그 현대자동차 대표부에 스카우트 되었다고 한다. 서른도 안되는 나이에 부관장까지 승진도 했다. 2년 이상 일하다가 박현성 내외는 사할린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는 대도시였지만 친한 친구, 부모님이 사할린에 남아 있었기때문이다. 부모님은 사할린으로 이민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러시아어를 그리 잘 하지 않아 일상 문제로 외동아들과 자주 연락을 취하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때로는 현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었고 부친의 건강도 안좋은 상태가 주요한 이유이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을 받은 현성 씨는 부모님에게 상당한 배려를 하는 아들이다. 될 수 있으면 뭐든지 도와주고 싶어하고,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필자도 잘 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지만 3년 전에 박현성 씨는 사할린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친구 권유에 <예지나야 러시아>당에 들어와 본당 청년단체 <몰로다야 그와르지아>의 사할린 운영위 위원으로서 여러 행사를 조직,진행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 알렉산드르는 주두마 청소년의회 예비인 이기도 하다.

안산시를 통해 사할린주 한인회 등 관계자들과 많이 접촉하다보니 스스로 주한인회 활동과 문제에 관심이 생기기도 했다고 한다. 한인회 사업에 청소년 유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애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어르신들이 사할린 한인역사를 잘 알고 이어왔지만 차세대가 많이 모르고 민족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 그런 마음이 들었다."며 소신을 밝혔다.

알렉산드르에 따르면 현재 사할린 청년 10명 정도가 그를 따라 한인회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며 그들 중에는 학생, 교사, 변호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 앞으로 주한인회 지도부와 잘 의논하여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물론 현성씨는 사할린 한인동포 역사와 문제도 탐구해왔다고 한다.

필자는 "현성 씨에게 한국과 러시아는 무엇입니까?"란 질문에 그는 "한국은 전세계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민족정체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전망과 전략이 있는 강국이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이런 강국에서 자랐으면 합니다."라고 표명했다.

필자는 박현성 씨와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의 교육, 언어의 의미, 러시아어 교육, 한국업체들의 사할린 관련 사업 등등. 그의 말을 들으며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다.

현재 한 한국 대기업을 대표하는 일을 해온 박현성 씨는 사회 활동가로, 애정이 많은 남편과 아버지로, 교회의 교인으로서 적극적이고 일을 즐기며 활동을 펼쳐가려 한다.

이런 청년들이 지도자로 활동하는 사회에서 이뤄지는 활기찬 생활을 우리는 기대해 본다.

(배순신기자)

이모저모

1월에 1만1000여 명이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파크 방문

올해 첫 달에 1만1000여 명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 공원을 방문했다. 방문객들은 주로 자녀와 함께한 가족, 사할린주의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이다.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다른 지역의 손님들도 우리 역사공원을 방문하여 자기 여행 프로그램 일정의 하나로 견학하며 소개된 멀티미디어 관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사할린주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는 방문 프로그램과 견학 코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라고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 자치비영리단체의 이사장 유리 필리펜코는 강조했다.

역사공원은 국가 역사연구를 위한 장소이자 교육적 지역단위체의 한 부분이 되었다. 박물관에 전람된 4곳의 멀티디어관 <류리코위치>, <로마노브>, <1941-1945년. 큰 위기에서 위대한 승리까지.>, <1945-2016년. 러시아는 나의 역사.>는 모두 인기가 있다. 종합전시관에는 사할린 박물관들, 주 일반과학도서관과 주 역사고문서보관소 직원들이 연구하고 작성한 지역 향토적 요소들이 소개되어 있다. 전람장에는 터치 테이블, 화면, 영화관, 라이트박스, 콜라주, 프로젝터, 태블릿 컴퓨터,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를 갖추고 있다고 역사공원 측은 전했다.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은 화요일- 일요일 11시부터 18시까지 개장한다. 입장은 무료. 문의 전화 49-57-28.

11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сетили в январе парк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Свыше 11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сетили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 первый месяц текущего года. Основная часть — семьи с детьми,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К нам приходят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ногие гост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ключили визит в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в свою экскурсионную программу и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мультимедийные экспозиции. Кроме того, мы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ем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Школьникам и студентам предлагаются программы посещения и обзорные экскурсии,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АНО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Юрий Филипенко.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стал частью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кластера региона, местом для изучения ис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а.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уются все четыре мультимедийные экспозици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в музее: "Рюриковичи", "Романовы", "От великих потрясений к Великой Победе. 1914-1945" и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1945-2016".

В комплексе представлен и региональны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компонент, над которым трудились сотрудники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ее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региона. Экспозиции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различные формы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носителей: сенсорные столы, экраны, кинотеатры, лайтбоксы, коллажи, проекторы, планшетные компьютеры, интерактивные книг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сообщает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открыт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со вторника по воскресенье с 11:00 до 18:00. Вход бесплатный.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9-57-28.

사할린에서 제 20 회 체호브 학술회의 선집 편찬

2017년 1월 30-31일 <사할린 섬> 체호브 문학예술 책 박물관에서 진행되었던 제20회 지역 체호브 학술회의 자료들이 책으로 출간되었다. 학술회 논문 선집은 폭넓은 독자층과 문화기관과 교육계, 학계 관계자들에게도 추천되고 있다.

이 선집의 논문들은 각 개별로 구성되어 있고 체호프 작품의 문헌적 면에 대한 연구자료로 시작된다. 다음에는 향토 역사 · 문화에 대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세 번째장에서는 사할린주의 문화유산과 체호브 작품의 대중화와 보존 측면에서 도서관들과 박물관의 경험을 종합하여 주요 내용들을 묶어놓았다. 학교 및 유치원 기관 교원들의 발표자료들은 <현대 교육에서 체호브의 작품들>이란 장에 포함되어 있다.

선집 속에는 <제20회 체호브 학술회> 지역 학술회 참가자들의 발표 모습들을 에스.쿠조보브와 데.우샤코브 박물관 직원들이 컬러 사진으로 담아 배치했다고 박물관 측이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выпустили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XX Чеховских чтений

Опубликованы материалы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XX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в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30-3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статей рекомендуется широкому кругу читателей, а также сотрудникам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Статьи в настоящем сборнике располагаются по разделам. Книга открывается рассмотрением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аспектов в изучении творчества Чехова. Далее помещены статьи из области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краеведения. Опыт музеев и библиотек в сфере сохранения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творчества Чехова и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общён в третьем разделе. Материалы выступлений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школ и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ключены в раздел сборника "Творчество А.П. Чехов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В цветной вкладке размещены фотографии выступлений участников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XX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сделанные сотрудниками музея С. Кузововым и Д. Ушаковым, сообщает музей.

사할린국립대, <토요대학>기획에 참가할 중고등학생들을 초대한다

사할린국립대학교 설립 20주년 기념을 즈음하여 사할린국립대는 2월부터 5월까지 <토요대학> 기획의 일환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40개 이상의 강좌를 개설한다. **(8면에 계속)**

주한인회, 사할린주사회원과 선거 진행 관련 협력협정

3월 18일 러시아대통령 선거 날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할린에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사할린주선거위원회 윅토리아 체르카소와에 따르면 주내에는 영구 투표소 311개와 임시 투표소 9개, 그리고 선거날에는 선박들에서 110개 투표소를 열릴 계획이다.

올해는 사회원이 자기 대표 선거 관찰자를 투표소에 보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생겼다.

1월말 사할린주 사회원에서 블라지미르 이콘니코브 의장의 주재하에 시민선거권리시행조사실무그룹의 첫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사회원은 사할린주한인회, 그리고 <러시아청년연맹>단체와 사할린주에서 선거에 대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원을 대표하는 선거 관찰자의 준비와 연수 문제를 논의했다.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이 주사회원 위원이란 것을 상기시킨다.

▲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는 사할린주사회원 블라지미르 이콘니코브 의장과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미리 보는 평창 개회식

(1면의 계속)

국제대회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역대 10번째이자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이래 11년 만이다.

북한이 참가하고 여자아이스하키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마지막 남은 분단국에서 열리는 이번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으로서 상징성은 한층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회식 식전행사에서는 북한 주도로 발전한 국제태권도연맹(ITF) 소속의 북한 태권도 시범단과 한국 중심으로 성장한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의 합동공연도 펼쳐진다.

참가국 선수단이 모두 행사장에 들어선 뒤에는 이희범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환영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을 선언하게 된다. 이어 올림픽기가 게양되고, 선수와 심판 대표가 선서한 뒤에는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가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대회 기간 타오를 성화는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제작된 성화대에 옮겨진다.

한국 동계스포츠 최고의 스타인 '피겨 여왕' 김연아(은퇴)가 1순위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성화 점화자와 점화 방식도 마침내 베일을 벗는다.

(평창=연합뉴스, 2018년 2월 7일)

송영길 위원장, "북방경협이 우리의 미래, 보수 진보 구분 없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 위원장의 모스크바 구상을 듣다

[모스크바=안성규 북방경제협력연구소 소장]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의 유럽-러시아 순방에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송영길 위원장을 '송장군'이라고 불렀다. 불도저처럼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정열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하루에 거의 500km를 이동하는 강행군도 했다. 지난 26일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인사 6명을 잇달아 면담하기도 했다. 그만큼 북방경제의 열기를 살리려는 노력이다. 28일 모스크바의 롯데호텔 위원장의 숙소에서 북방경제에 대한 그의 생각과 구상을 약 1시간 가까이 들어봤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안: 북방경제협력이 시작된 뒤 러시아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됐다고 들었다. 실제로 그런가.

송: 어느 나라든지 정상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정상들 간의 관계가 국가 정책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4대 강국 중에서 가장 관계가 좋은 게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관계라고 생각한다.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부터 분위기가 좋았다. 축하 전화도 해 주고 특사도 잘 받아줬다.

안: 이번에 와서 극동담당 트루드네프 부총리, 갈루시카 장관,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 마르글로트 외교부 차관, 볼로딘 하원 의장 등을 많이 만났는데 하루에 잡기는 쉽지 않은 일정이다.

송: 무엇보다는 기본적으로 한러 정상간의 신뢰관계가 기초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다. 개인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번 특사로 왔을 때 푸틴 대통령이 제게 '러시아의 친구, 송영길'이라 했고 '성 안드레이 3대 깃발', 오르지나 드루쥐비 훈장도 받게 되니까 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 아니겠는가.

안: 그런 상황이 북방 협력에 도움이 되나.

송: 그렇게 생각한다. 북방경제는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다같이 추진해서 왔다. 실제 내용상으로 동력과 의지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특히 북방경제는 노태우 보수 정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본다.

안: 이번에 유럽과 모스크바를 한꺼번에 온 순방의 전반적인 목적을 정리하고 평가해 달라.

송: 에너지를 목적으로 순방했다. 동북아에서도 에너지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것에서 출발했다. 유럽연합도 사실 석탄철강공동체에서 발전하지 않았는가. 그 유럽에 발전된 전력계통 연결, 슈퍼그리드를 보려고 했다. 또 벨기에에서 지부르게 항구를 간 이유는 야말 천연 가스 운송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야말 LNG의 운반 노선 가운데 지부르게를 서유럽 중간 기착지, 캄차카 반도는 동북아 기착지다. 야말 가스를 도입하면 여름에는 북극항로로 오고 겨울에는 지부르게를 통해 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양쪽을 보는 의미가 있다. 야말을 29일 직접 봄으로써 이번 여행이 완성될 것이라고 본다.

안: 이번 일정에서 북방경제라는 게 민간 부분이 주도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다. 유럽에선 그리드 사업도 정치적인 결정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송: 그렇다. 그래서 북방경제위원회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것 같다. 민간과 상호협력이 돼야 한다. 이러한 거대한 망 설치는 개별 기업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설치하고 이를 개방함으로써 민간인들이 그 망 위에서 독자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전선, 통신과 같이 철도, 에너지 인프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안: 그러면 이제 연관된 질문으로 이런 생각들을 해왔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송: 기업들은 이익이 안 나면 투자 안 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하는 것은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600개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막혔던 부분을 푸는데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호드카 비료공장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모프 수산물 가공 산업도 이미 부산항만공사 등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안: 그럼에도 몇몇 기업들의 의사는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에서처럼 한국 기업의 진출 열기는 없다.

송: '커넥션'의 한계 때문이다. 지금 크림반도 합병과 이란 핵 같은 문제로 경제제재가 발동 중인데 그런 것들이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 이란 경제 제재에서 마지막 단계를 제외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란 사업을 쏠쏠하게 했다. 유럽과 미국이 들어가지 못한 틈을 활용했다. 크림 합병에 대한 제재에서도 우리는 미국을 설득해서 빠졌다. 한편 EU나 일본, 미국의 제재에 대해 러시아도 역(逆)제재를 했다. 제재국에 농산물이나 가스 수출 안 하겠다는 식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쪽에도 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활용할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인데 파이낸싱이 가장 큰 문제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사업이나 거대 플랜트 사업을 하려면 금융부문에서 어려움이 있게 된다.

안: 북방경제를 위해 초기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방경제의 주요 목적지인 극동에는 별로 없다. 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송: 그래서 '한국 투자자의 날'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번에 한다.(3월5~6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

안: 러시아에 대해서는 주로 물건을 팔고 자원을 가져 오려고만 한다는 인식이 있다. 상생을 해야하지 않는가.

송: 이미 러시아에 자동차나 전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들어와 러시아와 같이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 조선소를 만들었다. 조선 산업도 배만 파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극동에서 그런 협력이 더 커지고 잘 되기 위해 철도를 활성화 해보자는 게 제 구상이다. 혈관이 잘 흘러야 그 주변이 발전하는 거니까

이번에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을 만나서 3단계 전략을 강조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보스토니치 항구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모스크바와 유럽으로 철도 운송 콘테이너를 늘려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 정부가 TCR(중국횡단철도)에 하는 것처럼 러시아 정부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얘기도 했다. TSR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한-러 조인트 벤처의 필요성을 공동 검토하자는 데 대해 러시아도 동의했다. 2단계는 나진-하산 철도의 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가 풀리면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3단계는 동해선까지 연결돼서 부산에서 바로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것이다. 지금은 1단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안: 모스크바에서 외교부 차관도 만났다.

송: 모그굴로프 차관은 6자회담 수석대표이기도 하고 대북관계, 한반도관계를 전담한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국면을 잘 살려 북미 대화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데 100% 공감하고 함께하자는 얘기를 했다.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식에 푸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계속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를 했다.

안: 야말은 왜 가는가. 쇄빙선과 가스 도입 때문인가.

송: 야말은 육지에서 가스를 추출해 해저 추출하는 사할린 등에 비해 채굴 비용이 적다. 추워서 힘든 면도 있지만 액화시키는 데 오히려 비용이 줄어드는 면이 있다. 가스를 영하 160~163도로 압착해 액화시켜야 하니까, 대신 운반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브레이크-이븐 포인트(손익분기점, BEP)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을 둘러 봐야 될 것 같다.

쇄빙선의 경우, 1차 15척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이다. 또 내가 듣기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5척 정도 규모의 2차 발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야말 건너편의 지단에서도 가스가 개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지금 말하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할 것이다. 또 이 문제는 가스와 상호 맞물려 있다. 가스 물량을 우리가 도입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 야말 가스 도입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송: 가격을 어떻게 맞추고 얼마나 물량을 보장하느냐가 중요하다. 사할린은 가깝고 좋지만 물량 보장이 불확실하다. 야말 2차 사업지는 물량은 보장은 되는 것 같은데 가격과 운반이 아직 불확실하다. 만약 제때에 안정적인 공급과 운반이 확보되지 못하면 블랙아웃 문제가 발생한다. 요새 같이 추울 때 가스 부족해서 얼마나 난리인가. 보통 가스 공급 계약은 최소 20~25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처음에 아주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하기도 쉽지 않다.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оссийский союз молодежи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могут следить за выборами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ось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мониторингу реализации избирательных прав граждан. В его рамках палата подписала соглашения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с обла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Российский союз молодежи".

Предметом соглашения является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торон по общественному контролю за ходом выбор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части соблюдения избирательных прав и свобод граждан.

Основной темой обсуждения стал вопрос подготовки и обучения наблюдателей от палаты.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были затронуты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егион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Анита Цой: я покорю сахалинцев своим шоу

18 февраля на сцене 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Сити Холл" заслуженная артистка РФ Анита Цой готова поразить сахалинцев своим необыкновенным шоу.

Сейчас Анита и 26 участников ее коллектива пакуют чемоданы, костюмы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отправления в гастрольный тур. В этот раз их ждут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 особенно на Сахалине: несмотря на большое желание, в силу раз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этой яркой российской исполнительнице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ни разу не удавалось побывать на острове.

18 февраля этот случай представится и должен стать особенным: Анита не только едет на Сахалин, но и везет свое юбилейное шоу "10/20", обещая поразить воображение островитян.

Масштабное шоу, которое со дня премьеры в 2016 году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70 тысяч зрителей, уже получило немал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ценок:

●Музыкальная премия ZD Awards 2016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ее концертное шоу".

●Премия Top Hit Music Awards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ее концертное шоу/гастрольный тур" и "Режиссер и продюсер шоу",

●Премия TopicalStyleAwards в номинации "Самое стильное шоу",

Премия Musicbox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ее шоу года 2017".

Шоу "10|20" расшифровывается, как 10-е юбилейное шоу Аниты Цой, созданное ею за 20 лет на сцене. В основу шоу легла реальная жизнь Аниты Цой, ее творческий и личный путь. Главным символом шоу стал древовидный имперский пион, исполняющий мечты того, кто, по древней корейской легенде, сумеет взобраться на вершину горы Ариран и добыть цветок. Недаром сама Анита называет шоу "10|20" — шоу мечты.

Также в него вошли лучшие песни, которые знают и любят поклонники певицы: "Небо", "На восток", "Береги меня", "Полет", "Лето. Латте. Любовь", "Мой воздух, моя любовь", "Твоя_А", "Сумасшедшее счастье" и др.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шоу все хиты были заново переаранжированы. Над музыкой работала авторитетная команда из Америки и России. Также в шоу "10|20" вошел новый музыкальный материал из альбома 2016 году "Без вещей". Всего над шоу работало более 150 человек из шести стран мира: России, Америки, Австралии, Франции, Германии, Украины.

За время шоу Анита Цой неоднократно меняет костюмы и играет саму себя 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ах: 20, 30 и 40 лет.

Анита Цой всегда уделяла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своим зрителям, относясь к ним с особой заботой и любовью. Недаром поклонники артистки закрепили в соцсетях звание "самой доброй и самой человечной звезды".

В 2017 году Анита Цой запретила организаторам тура шоу "10|20" ставить билет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стоимостью выше 4000 рублей, чтобы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зрителей смогли увидеть любимую артистку.

Писатель Сергей Ян встретится с поклонниками в музее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В литературной гостиной в музее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стоится творческая встреча с писателем Сергеем Яном.

Сергей Дмитриевич Ян — прозаик, поэт,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с 2005 года), президент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дружество", лауреат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12 год).

Сахалинскому читателю он известен как автор путевых заметок "Страна отцовских грёз", поэтического сборника "Тени цветов", повестей "Сон одинокого облака", "Слушая песни дождя" и друг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Основные мотивы литератур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исателя — лирические откровения, в которых переплетаются радостные и печальные ноты, философские размышления о судьба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оссии.

В программе встречи:

●выступления Сергея Яна, Ирины Левитес и других сахалинских писателей;

●работа свободного микрофона;

●просмотр тематической книжно-иллюстративной выставки "На семи ветрах";

●автограф-сессия.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16 февраля, начало в 17:30.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ообщает музей.

В РК растёт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В апре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К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23.858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Это на 18,8%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едыдущего года. Показатель сокращался в течение трёх лет с 2012 года. Затем последовал рост. 55,1% всех студентов пришлись на граждан Китая, 11,8% на вьетнамцев, 4,3% на монголов, 3% на японцев, 2,2% на американцев. Между тем, общая до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в РК всё ещё низка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Так, в Австралии их доля составила 23,8%,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21,1%, в Германии 8,7%, в России 5,7%, в США 5,3%, в Японии 4,7%, в РК 2,4%.

KBS World

Мэрия Сеула помогает бездомны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эрия Сеула предоставила помощь в оплате жилья 1045 бездомным. 82% из них сумел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остичь самообеспечения. 239 из них получили работу в частном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е, а 276 человек статус получателей социального пособия. Часть бездомных восстановили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Столичная мэрия с 2011 года оказывает бездомным, а также гражданам, находящимся в уязвимой группе, помощь в виде выплаты 250 долларов для аренды жилья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месяцев. Таким людя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мощь в поиске работы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нормального уровня социальной жизни.

RKI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RADIX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ун Чжэ Ин: Спорт способен преодолеть идеологически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разногласия

Зимняя Олимпиада в Пхёнчхане покажет всему миру не только то, что спорт способен преодолеть идеологически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разногласия, но и то, что спортивный обмен вместе с диалогом являются проявлением мир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5 февраля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132-й сессии МОК в Центре искусств в городе Канныне.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в ряде стран выражали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безопасности Олимпиады, а многие даже считали невозможным участие Пхеньяна в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и создание единой сборной Юга и Севера. Он назвал прекрасным то, что посл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усилий мир находится в преддверии мирной и безопасной Олимпиады. Мун Чжэ Ин заявил, что земля, несущая глубокие раны войны, которая разделила единую страну, направляет послание с призывом о мире и примирении.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ессии МОК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9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президен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Томас Бах,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Чон Сэ Гюн и другие.

В Москве состоятся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4 февраля директор Перв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Европы МИД КНДР Им Чхон Иль прибыл в Москву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сультациях. Он встретится с директором перв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МИД России Андреем Кулико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источники указывают, что Им Чхон Иль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о встрече по вопросам двусторонн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Он также намерен обсудить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ой план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ённых 7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Скорее всего,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разъяснит результаты состоявшихся 1 февраля в Москве консультаций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Д РК п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Ли До Хуна и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Игоря Моргулов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артисты прибыли в Р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ансамбль «Самчжиён» в составе 140 человек прибыл во вторник 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рт Мукхо в городе Тонхэ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на борту парома «Мангёнбон-92». Артисты выступят в городах Канныне и Сеуле, и в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в РК будут размещаться на пароме. Заход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удов в порты РК являются нарушением санкций от 24 мая 2010 года, принятых в ответ на потопление сторожевого корабля «Чхонан». Между т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делало исключение для парома «Мангёнбон-92», ради успеш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Паром не входит в чёрные списки ООН и США и не подпадает под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анкции. Накануне в РК прибыла техническая группа из 23 человек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концертам ансамбля «Самчжиён». В среду прибыла гурппа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из 280 человек,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четвер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СК, 229 болельщиков, демонстрационная команда по тхэквондо в составе 26 человек и 21 журналист. Они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западным участком межкорейской сухопутной границы.

Вице-председатель Samsung Electronics Ли Чжэ Ён осуждён на 2,5 года условно

5 февраля суд огласил решение по апелляции, поданной вице-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Ли Чжэ Ёном. Суд приговорил его к 2,5 годам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с отсрочкой исполнения приговора на четыре года. В результате Ли Чжэ Ён, находившийся под стражей 353 дня, выпущен на свободу. Решение суда первой инстанции о лишении свободы сроком на пять лет отменено. Важную роль в этом сыграло непризнание в качестве взятки денежных переводов Samsung на счета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фондов Mir и K-Sports, которые контролировались Чхве Сун Силь, подругой экс-президента РК Пак Кын Хе. Суд отклонил также обвинение в незаконном сокрытии за рубежом 7,5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изнав при этом взяткой выделение средств на оплату занятий конным спортом Чон Ю Ра, дочери Чхве Сун Силь. Суд посчитал, что передача компанией Samsung автомобилей и лошадей в безвозмездное пользование Чхве Сун Силь не является взяткой, так как ей не передавались права собственника. Указывается также, что суд не признал обвинения о якобы проводившейся работе по передаче Ли Чжэ Ёну руководства Samsung Group по наследству. Сняты также обвинения в попытках заручиться поддержкой прежней власти в данном вопросе.

(RKI)

Болельщики раскупили билеты на хоккейный матч Россия - США

Олимпиада в Пхенчхане практически уже началась, н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усилия организаторов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полностью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плохих продаж билетов пока не удается. На этом фоне выделился хоккейный матч Россия - США, на который еще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о его начала не осталось ни одного билета.

Глава Оргкомитета Олимпиады-2018 Ли Хи Бом известен тем, что любит "рубить правду-матку", а потому, комментируя ситуацию, он не стеснялся в выражениях. "До открытия Олимпиады осталось совсем немного времени, но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билетов на состязания не продана. Надо что-то делать, пора принимать экстренные меры", - заявил чиновник. СМИ дают различные цифры продаж. Пятого февраля было сообщено, что продано 77 процентов билетов, тогда как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пару дн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К Томас Бах заявил о 88 процентах.

В любом случае, как признают, в Оргкомитете, все идет к тому, что на зна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состязаний будет очен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устых мест. Корейцы, на которых возлагали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едпочитают по понятным причинам "свои" виды спорта, то есть там, где они ожидают медали - шорт-трек, скоростной бег на коньках. Ажиотаж вызвали и игры единой корейской женской хоккейной сборной, где вместе бок о бок будут играть спортсменк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о на этом фоне необычно провальными выглядит ряд других видов и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обычно считаются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ми. Своего рода "гвоздями" программ всех Олимпиад считаются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но до сих пор непроданных билетов на них хватает с избытком, хотя начало игр состоится уже вечером девятого февраля.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куда обычно народ валом валит, также не может похвастаться рекордами, в ряде других видов также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устых мест на трибунах.

Ранее корейцы заявляли, что смогут без проблем продать 100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билетов, но, как выясняется, обещание сдержать не получается.

По информации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Кориа Геральд", организаторы уже пошли на то, что стали бесплатно раздавать сотрудникам оргкомитета и волонтерам билеты бесплатно.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асается конечно же не пользующих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остязаний, однако сам по себе подобный факт говорит о многом.

Как отмеч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чин этому нескольк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ли по замыслу организаторов разобрать до 70 процентов билетов, любят только "свои" и не понимают ряда популярных во всем остальном мире видов спорта. В частности, подавляющему большинству корейцев надо объяснять, что такое биатлон и чем там спортсмены занимаются. Хоккей для себя Корея открыла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при этом мужская команда вынуждена была "импортировать" шесть-семь канадских и американских атлетов, предоставив им гражданство.

В Оргкомитете признали, что сильно сказался и скандал с отказом МОК допустить на Олимпиаду сборную России, а затем решение не приглашать без объяснения причин даже тех атлетов, чью невиновность подтвердил суд CAS.

"Я не имею права обсуждать решение МОК, но факт остается фактом: после решения о недопуске России на Олимпиаду мы не досчитались огром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осетителей именно из РФ. Россияне были самыми активными волонтерами,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России собирался ехать в Пхенчхан поддержать своих атлетов, но теперь такого ажиотажа нет", - сказал сотрудник, близкий к Оргкомитету ОИ-2018.

Он добавил, что россияне собирались "смести" билеты именно на те виды, на которые корейцы не особо хотят идти - лыжи, биатлон и ряд других. "Спортсмены из РФ хоть и в нейтральном статусе, но будут на играх, однако гостей из России тоже можно понять: когда не допускают твоих лучших атлетов, то пропадает желание ехать. Многие российские болельщики, к сожалению, отказались от Игр, что стало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плохих продаж", - сказал он.

Впрочем,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выступления именно россиян пользуются на играх весьма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Недавно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на матч хоккейных сборных России и США на Олимпиаде билеты уже полностью распроданы, хотя желающих посмотреть на эту игру еще очень много. В Оргкомитете заявили, что шанс попасть на эту игру все остается. В день игры будет снята бронь с части билетов, и они поступят в продажу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еред началом матч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7 февраля 2018 г.)

36% южнокорейцев не поедут на малую родину в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Каждый третий южнокореец не планирует поездку на малую родину в предстоящие выходные по случа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интернет-порталом по вопроса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Saramin среди 837 человек, имеющих работу.

Две трети тех, кто отправится на малую родину, в качестве транспорта намерены отдать предпочтение легковым автомобилям, 14,3% скоростным автобусам, 13,4% скоростным поездам. 40% респондентов отправятся в поездку 15 февраля за день до самого праздника.

Половина респондентов,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будут отдыхать в течение всех четырёх официальных выходных дней, 14,8% отдохнут три дня, а 11,9% пять дней. 4,7% указали, что не смогут отдохнуть из-за работы.

KBS World

Свадебные расходы в РК превысили 210 тыс. долларов

Средний объём свадебных расходов среди молодых супружеских пар РК, заключивших брак в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превысил 230 млн 850 тыс. вон или 210,4 тыс. долларов.

При этом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жилья пришлось 72,7% этой суммы.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данные брачной компании DUO Wedding, полученные в результате опроса среди тысячи новобрачных.

Остальные деньги уходят на свадебные подарки, около 30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проведение свадебной церемонии 15 тыс. долларов, подготовку к свадьбе 11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свадеб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уходит около 4,5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платья 2,5 тыс. долларов. 22,8% респондентов указали, что расходы делятся поровну между сторонами жениха и невесты. 32% сообщили, что большую часть расходов берёт на себя сторона жениха.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цы поддержали акцию «За чистый спорт – без политики»

Акция-флешмоб «За чистый спорт – без политики» в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йских атлетов, принимающих участие в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2018 в Пхенчхане, прош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озл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На Сахалине сегодня находятся спортсмены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выступающие в дисциплине ски-кросс: Сергей Ридзик, Семен Денщиков, Егор Коротков, Игорь Омелин, Кирилл Гладков, Анастасия Чирцова, Виктория Завадовская. Здесь они акклиматизируются, проведут финальные тренировки, а затем прямым рейсом отправятся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Южную Корею.

Среди гостей спорти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оказались дети, студенты, люди среднего возраста 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лова поддержк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оманды России пришел сказать и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Для островных любителей спорт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аздника подготовили много приятных сюрпризов –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автограф-сессию с российскими олимпийцами, которые уже скоро будут покорять трассы в Пхенчхане, и возможность с ним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В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ой зоне сахалинцы оставили много добрых пожеланий российским спортсменам, участвующим в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2018.

– История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когда в мире возникает угроза – другие страны всегда обращаются за помощью к России. Так было во времена наполеоновских захватов, нападений фашистов. Русские приходили и помогали. 75 лет назад весь мир узнал о Сталинграде. Его именем называли площади и улицы во всех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ах. Именно под Сталинградом, где немецкая армия потерпела поражение, решилась судьба нашей родины и мира. Наши олимпийцы должны доказать, что они – достойные потомки русских воинов, одержавших тогда эту славную победу, – сказал со сцены помощник военного комисса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России» Андрей Фугенфиров.

Студент Игорь Николаенко на акцию пришел вместе с друзьями,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российских олимпийцев и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луч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ортсмена 2017 года.

–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ужны, они помогают популяризировать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и спорт, – отметил он.

Поддержать и отдать голос за своего фаворита среди остров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пришел и студент Антон Ко. О сегодняшней акции он узнал в своем учебном заведении и сразу захотел поучаствовать. Антон рассказал, что сам занимается боксом и знает, как важна для победного настроя поддержка болельщ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лимпийской команды России по фристайлу, принявших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сахалинцы встречали тепло и громко.

– Хотел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ас всех от лица нашей команды – за теплый прием и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заключительного этапа перед зимними Олимпийскими играм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Для нас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и мы постараемся оправдать ваши надежды, – отметил российский олимпиец, победитель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ски-кроссу на этапе Кубка мира в Австрии Сергей Ридзик.

Алина Абалькова с приехавшими на Сахалин спортсменами российской команды заочно знакома уже давно –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смотрит состязания с их участием, а сегодня увидела их вживую и сделала на память несколько совместных фотографий.

– Думаю, наша поддержка им нужна. Любовь болельщиков – самое важное, что есть у спортсменов. Встреча с российскими олимпийцами – событие для меня волнительное и запомнится мне надолго, – сообщила Алина.

Сахалинка Яна Горбенко сейчас предпочитает спокойный спорт – йогу, хотя в прошлом занималась беговыми лыжами, поэтому в акции в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йской команды олимпийцев решил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без колебаний.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шей команды долго готовились к Олимпиаде, и я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у болеть за них во время соревнований. Думаю, в той непростой ситуации, в которой оказались росси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они приняли верное решение – поехать и выступить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Неважно, что будут они там под нейтральным флагом, главное – те награды, которые они, надеюсь, принесут России, – поделилась Яна.

Серебряный призер Первенства мира в ски-кроссе и член олимпийской команды России Виктория Завадовская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 Сахалине они уже встретились с огром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людей, которые их поддерживают.

– Приятно, что мы приехали тренироваться именно на российский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Мы встречались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журналистами. Поддержка такого количества людей,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придает нам сил и уверенности перед Олимпиадой. Много добрых пожеланий в наш адрес звучит лично 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Все политические разговоры меня не трогают – боевой настрой остался и даже усилился. Свои шансы в нашем виде спорта оценивать невозможно, так как человек с последней квалификацией может финишировать первым. Главное – везение и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воих силах. В нашей команде каждый может попасть на пьедестал, и я на это очень рассчитываю, – отметила Виктория Завадовская.

Итогом спорти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стало награждение лучшего спортсмена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17 года. Этот титул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голосования получила каратистка Ким Ю Ми.

Завершил акцию флешмоб,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го волонтеры в белых, синих и красных футболках выстроились в российский триколор и напомнили всем гостям, что олимпийский спорт всегда был над политическими событиями, происходившими в мире.

На Курилах с 1 февраля увеличивается скорость мобильного Интернета

Над решением этой важнейшей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проблемы по их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просьбам работает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нее власти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операторами сотовой связи (МегаФон и МТС) реализовали проект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связью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островов Кунашир, Шикотан, Итуруп и Парамушир. Мобильный доступ к сети Интернет стал доступен для жителей Южно-Курильска, Лагунного, Горячего Пляжа, Крабозаводского, Малокурильского, Курильска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высокую социальную значимость этих вопросов,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зяло на себя основную долю затрат в проекте. Были предоставлены спутниковые каналы для сетей связи, постепенно росла их пропуск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К конц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а достигла 300 мегабит в секунду,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и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Попов. - Однако постоянно растущий объем трафика, генерируемый жителями островов, продолжал приводить к перегрузкам. Учитывая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обращения курильчан, Губернато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 1 февраля 2018 года расширить суммарную емкость каналов еще на 240 мегабит в секунду. Это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скорость мобильного Интернета на островах почти в 2 раза.

Для жителей Южно-Курильска, добавил он, пропуск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каналов теперь составит 210 мегабит в секунду, Курильска – 190,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 72, села Крабозаводского на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 68 мегабит в секунду.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ручением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 развитию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устранению цифрового неравенства.

Власти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ют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елям жилищных сертификатов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бирать район проживания

С инициативой в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в региональн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выступил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Накануне он обсудил с жителя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блемные вопросы в реализации жилищной программы. Встреча прошла в режиме открытого диалога и вызвала большой отклик у горожан – актовый зал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едва вместил всех желающих.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озможности улучшить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дает профильная муницип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Ее участникам компенсируется до трети и более всех расходов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вартиры. Сделать это позволяют жилищ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которые выдают нуждающимся. Спрос на них постоянно растет, и действующая программа уже не в состоянии его удовлетворить. Результат - в этом году из полутора тысяч заявителей жилищ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получили лишь около двухсот.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городские вла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ыделяют 17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перспективе же, по мн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должны быть приняты меры системного характера. Они касаются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инструментов жилищной политики. Прежде всего, необходимо утвердить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новую стратегию комплексной застройки города. В ней, как считает Олег Кожемяко, важно отразить пригодные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К работе мэрия уже приступила, сообщил градоначальник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Сформированы обширные площадки у Сити Молла, напротив областного военкомата - в районе базы МЧС, а также в верхней части улицы Украинской. В городе под застройку освобождают бывшие зем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Ф – об этом ранее с военным ведомством договорился сахалинский губернатор. Применяется и новый для страны подход реновации, когда развиваются уже застро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 на месте ветхого жилья появляется новое – такая практика реализована в 18, 10, 25 и 8 микрорайонах.

Предоставлять новые квартиры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по их желанию можно и в пригороде. Например, в Новотроицком есть около 5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готовых под заселение. Однако, это территория уже другого района – Анивского, где действует своя программа.

- Необходимо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в этой ча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сняв имеющиеся ограничения.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вязи с дефицитом стро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ок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право приобретать квартиры по жилищным сертификатам в т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им подходят. При этом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о фиксации всех тех, кто подал заявления, дав им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сертификат в последующий период,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 Подобным образом –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истемного подхода к решению жилищных вопросов – должна выстраиваться работа и в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Это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квартирами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нуждающихся в ни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А у строи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явится горизонт долгосрочн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что 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налоги и рабочие места.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южносахалинки о снижении ипотечных ставок,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казал о том, что такое поручение недавно дано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полномоч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ем Трутневым.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уменьшения кредитного бремени, прежде всего, для молодых семей,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наличия детей. Предлагается также расширить сроки погашения ипотеки до 30 лет.

- Власть сегодня нас услышала и отреагировала на проблемы. Разговор получился открытым и честным. Самое главное для меня и моей семьи - появилась надежда на решение квартирного вопрос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поделилась после встречи одна из участниц разговора, жительница города Наталья.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проект «Хоккей в школу»

Его участники – около ста учеников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 –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во внеурочное время осваивать азы популярной игры.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к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пять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6 февраля на лед вышли учащиеся второго класса школы села Дальнее. Во дворце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для них организовали вводное обучающее занятие.

Прежде чем выйти на лед, школьникам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и о мер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технике катания. Опытные тренеры из дворца спорта проинструктировали, как правильно и в како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надевать форму.

- Полная хоккейная экипировка – это как доспехи у рыцаря. Сначала надеваем щитки - они индивидуальны для каждой ноги. Затем – защиту на пах, шею, наколенники, налокотники, нагрудник, свитер и краги. Примерно в середине процедуры облачения можно надеть коньки – так будет удобнее их зашнуровывать, - рассказал ребятам инструктор.

В распоряжении у школьников оказалось около 10 элементов снаряжения – от коньков до шлема. Такой комплект обошелся бы родителям в среднем в 25 тысяч рублей. Однако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Хоккей в школу» у учащихся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иматься хоккеем бесплатно. Все затр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экипировки и работу тренеров взяло на себя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проекте участвует пять школ. Три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26, №23 и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а также две из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 расположенные в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ах Луговое и Дальнее. С ребятами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учител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тренеры-инструкторы по хоккею, - пояснила начальник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Школы, которые участвуют в проекте, отбирались по нескольким критериям. Главным стало наличие собственного хоккейного корта. В дальнейшем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ариант доставки детей к местам тренировок из друг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а автобусе.

- Проект инициирован губернатором Олегом Кожемяко. Это логичное продолжение друг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проекта - «Горные лыжи в школу», который уже шагнул за грани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м начать занятия в Невельске,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Горнозаводске, Холмске и Аниве. Возможность осваивать горные лыжи получили около тысячи ребят. Думаю, что «Хоккей в школу»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станет не менее популярным.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планируем привлечь к нему около ста человек. И впоследствии будем расширять границы проекта,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Напомним, к занятиям хоккеем и горными лыжами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ривлекают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6-2020 годы». Ее утверди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находи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송영길 위원장, "북방경협이 우리의 미래, 보수 진보 구분 없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 위원장의 모스크바 구상을 듣다

(3면의 계속)

안: 2차 아말 사업지인 지단의 경우 러시아 정부는 48%의 지분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한다.

송: 노바텍은 그걸 오픈한다고 강조한다. 로즈네프나 가스프롬에 비해서 노바텍은 이런 데서 훨씬 플렉시블하다. 2차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참여 문제도 검토 중인데 이번에 한국가스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등 3개 기업과 함께 가는 데는 그런 면이 있다. 가스공사는 가스 도입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거기에 액화시설이나 부두 등 여러 가지 사업 가능성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야말 LNG 추가 운반선 수주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지분 문제는 생션(sanction, 허가) 문제와 결합돼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봐야 한다.

안: 러시아가 북방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지만 정작 러시아의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송: 러시아에 모든 걸 거는 것은 아니다.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가 100억달러 수준이었는데 2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는 1조달러를 넘는데 그 가운데 100~200억달러는 1~2% 밖에 안 된다.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가능성이 크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는 의미다.

러시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대륙경제, 유럽과 상대적으로 방치된 중앙아시아의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을 우리나라 경제와 결합시키는 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

안: 자루비노 문제가 우리가 좀 늦지 않았는가.

송: 지난번 우리 전문위원 회의 때 '자루비노항 개발에 중러가 협력을 말하지만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론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면담에서 그게 사실인지 두 번이나 물었다. 러시아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중국과) 진짜로 (fully cooperate) 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 달 초 왕양 부총리와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하얼빈에서 만난다. 그런데 마침 김동연 부총리도 2월 2일 베이징에 가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장관)과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한다.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있다. 중러의 경제 최고 책임자들이 하얼빈에서 만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우리와 만나는 것이다. 자루비노 항과 관련해서 동북 3성 물류가 자루비노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개발돼야 물량이 확보가 된다. 자루비노항을 개발하려면 러시아, 한국, 중국이 협력해야 투자 유치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컨테이너항 플러스 벌크항으로 곡물 사일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곡물 수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우리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투자할 수 있다. 이미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우리 7개 기업이 농업 분야에 투자를 한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농업 투자도 자루비노항과 연결돼야 한다고 본다.

내가 보기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그리고 우리의 북방경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3자가 만나는 결절점. 상징적 포인트가 자루비노항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엔 훈춘에서부터 자루비노항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자루비노항에서 TSR과 바로 연결하고, 이것이 우리 동해 철도와 연결되면 3개 철도가 다 만나는 곳이된다

철도와 항만의 연계 수송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며 북방위원회가 이 문제에서 중간 역할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

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나온 자료에는 자루비노가 비중 있게 치급되지는 않았다.

송: 문대통령도 남북러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사실 나진-선봉을 개발하려고 했다. 그런데 북핵 때문에 안된다. 나진-선봉에 들어간 러시아 철도공사도 적자가 나고, 러시아 회사도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더 이상 석탄 운송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는 나진-선봉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단 자루비노 다음이 나진(-선봉)이다.

자루비노 항을 우리도 개발해야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기존의 항은 이용료도 비싸고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다 잡고 있다. 따라서 어렵지만 초기 부두 개발에 투자를 해야 부두 이용권을 갖고 논의를 확대할 수 있다.

안: 지금까지는 중국이 그렇게 빨리 접근하리라는 건 의식을 못 했나.

송: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왜 계속 빨리 안 될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과도 협력이 많아져야 북방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 자루비노 항구가 안 되면 동북3성이 살 길이 없다. '차항출해'를 할 수밖에 없다. 동북3성이 중국 32개 지자체 중에 가장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체제에서도 동북3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고 한국 전문가이기도 한 흑룡강성 당 서기를 만났었다. 한중러가 협력 해야한다는 얘기를 했다. 협력이 잘 되면 동해를 제2의 지중해처럼 활용하는 환동해 경제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루비노를 통해 몽골과 중앙아시아가 연결될 수 있다. 몽골도 바다로 나가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자루비노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통로가 된다.

안: 자루비노항 개발에 우리도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송: 함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귀국하면 김동연 부총리와 만나 상의할 것이다. 일대일로와 문재인 대통령의 북방 정책이 같이 수렴해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려한다.

안: 그런데 철도 사업을 보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정도만 계획한다. 9-브릿지 사업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좀 더 다양화 해야하지 않을까.

송: 철도 사업의 경우 그동안 소극적이었다. OSJD 가입 논의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할 것이다. 정관 개정을 해서 4분의 3 찬성으로 통과시키도록 해 보고, 그 전이라도 북한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 러시아의 극동 개발 부서와 비교할 때 북방위는 너무 느슨하지 않은가.

송: 어차피 위원회는 집행기구가 아니라 심의자문기구여서 한계는 있지만,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기획재정부나 산업부에서 사무관 1~2명을 보내 팔로우업했다. 그에 비해 위원회는 한 30명 정도 직원에 위원들까지 있어 의제 관리를 하고 팔로우-업을 하고 점검을 한다. 그래서 해당 부서가 한 번 보고했다가 1년 뒤에 다시 꺼내서 보고하는 식의 체계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 북방 사업과 남북 관계는 연결돼 있나.

송: 아니다. 일단 분리다. 문 대통령도. 북한을 빼고 일단 협력할 수 있는 건 먼저 하라고 했다. '개문발차(開門發車)'다. 북한 들어오면 참여하는 것이다.

(정리=전지성 기자, 이종무 기자)

(에너지경제, 2018.01.30)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검진(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8년 3월 말**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우리말로 깨닫다]

조현용입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자기를 남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특별한 고민 없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조현용입니다.'라고 하거나 '제 이름은 조현용입니다.'라고 소개하면 됩니다.

나보다 어른에게 소개를 할 때는 성을 빼고 이름만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전화를 걸 때 '선생님, 현용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예의를 갖춘 표현입니다.

자기를 남에게 소개할 때 고민이 되는 장면은 지위가 붙어 있는 경우일 겁니다. 자신이 높은 사람이면 이름 뒤에 지위를 붙여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무개 국장입니다.'라든가 '저는 무슨 회사에 아무개 사장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자연스러운 느낌인가요? 좀 어색하지는 않은가요?

이런 장면은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아무개 교수라고 소개하거나, 아무개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는 예도 자주 보입니다. 대학에서는 자신을 아무개 학장이나 아무개 처장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교수끼리 서로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무슨 과의 아무개 교수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무척 어색하게 들리는데, 사람들은 하도 들어서인지 덤덤하거나 오히려 이러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은 전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틀렸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소개한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위는 그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를 해 줄 때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강연을 해 주실 분은 아무개 학장님이십니다.' 와 같은 표현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개 교수, 아무개 사장, 아무개 실장 등의 표현도 당연히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존경의 표현이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존경하는 모양새가 되면 어색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름 뒤에 지위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신의 지위를 꼭 표시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무슨 대학에 학장으로 있는 아무개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무슨 회사의 대표 아무개입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름을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면 그냥 '무슨 부서의 무슨 과장입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라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입니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 원장으로 있는 조현용입니다.', '국제교육원 원장 조현용입니다.'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겠지요.

물론 제가 원장인 것을 알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앞에서는 굳이 원장이라는 표현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경희대학교 교수 조현용입니다.'라고 표현하면 충분합니다. 한편 우리말에서는 직업명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는 일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라는 말보다는 농사를 짓는다는 말을 선호하죠. 그런 의미에서 교수라는 말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경희대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또는 '한국어 어휘와 문화를 공부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소개라는 생각입니다.

자기소개도 문화이고 예의입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수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언젠가는 이런 소개 방식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는 태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가 세상을 만나는 첫 방법이니까요.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대학 내에서 진행되는 <토요대학>은 상호작용 강연, 활동교실, 실습수업, 사업게임, 세미나, 학술조사 탐방,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수업지도는 사할린국립대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과 연구가들이 학생들을 매력적인 학문의 세계로 안내하게 된다.

<토요대학>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과학적 및 문화적인 지평을 넓히도록 돕고 대학의 학구적 환경에 도전하도록 돕는다. 5개 이상의 수업을 통과한 참가자들에게는 <전문 탐구>프로그램에 무료 시험 증서를 수여한다.

참가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토요대학>기획에 참가를 위해서 등록은 필수로 벌써 2월의 행사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9-11학년생들을 위한 활동교실 <상담교사 업무에서 이야기치료>(2월 10일), 10-11학년 학생들을 위한 <3D 모델 제작>(2월 17일), <고등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게임>공개강연 (2월 17일)이 진행된다. 자세한 것은 45-23-80로 문의 바람. 현재 기획의 일환에 따른 행사의 전체 시간표를 살펴볼 수 있다고 사할린국립대 홍보실은 전했다.

СахГУ приглашает школьников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субботы"

С февраля по май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школьники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более 40 занятий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субботы". Проект приурочен к празднованию 20-летия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субботы"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интерактивные лекци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рактикумы, деловые игры, семинары, научно-ознакомите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тренинги в стенах остров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пытн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научные сотрудники СахГУ станут проводниками в увлекательный мир науки.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субботы" дадут участникам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е школьной программой, а также помогут расширить научный и культурный кругозор и окунуться в университетскую академическую среду.

Участники, прошедшие 5 и более занятий,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ертификат на бесплат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по программе "Профориентатор".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екте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субботы"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регистрацию. Уже сейчас мож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мероприятия февраля: мастер-классы "Сказкотерапия в работе практического психолога" для учащихся 9-11 классов (10.02), "Изготовление 3D моделей" для учащихся 10-11 классов (17.02), открытую лекцию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ля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для учащихся 10-11 классов (17.02). Подробности можно уточнить по телефону: 45-23-80. Также уже сейчас можно изучить полное расписа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ГУ.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Объявление

Женщина (65 лет) жела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мужчиной 1-ого поколения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 р.) без вредных привычек,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выезда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Контактный тел.: 89147605311, 89242804045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알립니다!

사할린주한인회는 **2018년 2월 16일(금) 16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음력 설맞이 행사**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75세 이상의 1세 분들을 초청합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문의전화: 42-40-87

조직위원회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